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8.14)

1. 한국의 화이트국가 제외 관련

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12일 단행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이번 조치를 ‘보복조치’로 간주,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.¹⁾
- 또한 광복절을 맞이하는 한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임.²⁾

□ [일본 기업 동향]

-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의 대일 수출 주력 품목인 석유제품, 철강 등이 (한국 정부의 수출) 관리 강화 대상이 될 경우 일본 기업들이 조달처 대체 등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함(日本經濟新聞).³⁾
- 일례로 질산 암모니움(Ammonium nitrate), 등유 등 일부 제품들의 경우 한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동향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입장임.
- o 일본의 질산 암모니움 수입량의 70%가 한국산이며, 등유의 경우 일본 국내 소비량(겨울)의 약 20%가 한국산 제품임.⁴⁾

□ [일본 언론 평가]

1) 「日韓、輸出管理で応酬 優遇国から除外で摩擦一段と、韓国側措置、半導体は対象外の見通し。」『日本經濟新聞』(2019. 8. 14)

2) 「日本は冷静対処 経産相「根拠不明」『産経新聞』(2019. 8. 14).

3) 각주 1과 출처 동일

4) 질산 암모니움은 화학비료의 주원료이며 폭약 제조에도 이용됨. 비료 제조업체들은 2~3개월분의 질산 암모니움 재고를 확보하고 있지만, 한국의 화이트국가에서 일본이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수출 문제 등이 장기화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조달하는 방법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임. 등유의 경우 최근 일본 자체 생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지장이 발생하면 각 기업은 대체조달의 필요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하고 있음(出光興産은 “상황을 주시하고 있다”고 답변).

-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자국의 화이트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를 두고 “한국 정부가 결국 국제적으로 규정위반이라고 비판해 온 일본과 같은 형태의 조치를 취한 것” 이라고 평가함(산케이, 8.14).⁵⁾
- o 마이니치 신문도 “한국은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화이트국가 배제(8.2) 조치를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라고 비난하며 WTO에의 제소도 언급하였는데, 사실상의 대항조치를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한국 측의 주장의 근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.” 고 논평함.⁶⁾
- 한편 한국 정부가 12일 “일본 정부가 협의를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” 라고 한 것과 관련,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일본 측과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협의하기 위한 카드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함.⁷⁾

2.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관광산업 관련

□ [불매운동으로 인한 영향]

-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따른 한국에서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.⁸⁾
- o 일례로 데상트(의류)의 경우 2019년 3월 매출액 중 한국에서의 매출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일본 기업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됨.
- o 한국이 7월에 수입한 일본산 맥주는 전월대비 45% 감소하였는데, 맥주 제조업체 아사히그룹홀딩스는 “시장 동향을 포함,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대응하겠다.” 는 방침임.

5) 「韓国、日本を優遇国除外 来月施行 輸出管理に報復」 『産経新聞』(2019. 8. 14).

6) 「焦点：輸出優遇、日本を除外 韓国、対話再開に望み」 『毎日新聞』(2019. 8. 14).

7) 각주 5와 출처 동일

8) 「日韓対立、影響どこまで、韓国向け半導体材料、一部に輸出許可、不買運動の広がり、企業に懸念。」 『日経ヴェリタス』(2019. 8. 14).

-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“불매운동이 상상 이상으로 번지고 있다”면서, “(광복절 이후) 불매운동이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.” 는 전망도 제시됨(日本總研).

□ [일본 관광산업 동향]

-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 한일관계의 악화가 일본 큐슈·오키나와 지역의 관광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함.⁹⁾
- 일례로 한국인 여객선 탑승객 감소, 호텔 예약 건수 감소, 한국계 여행사의 사무소 폐쇄 및 인원 축소, 단체 관광객 투어 수주액 감소, 예약 취소 등임.
- 한 호텔은 10월 한국인 관광객의 예약 건수가 전년대비 약 90% 감소하였으며, 오키나와의 한 여행사의 한국인 단체 투어 수주액은 전년대비 약 80% 이상 감소함.

9) 「日韓対立、九州観光に影 空路運休や宿泊予約9割減も」 『日本経済新聞電子版』 (2019. 8. 14).